

미래 모빌리티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전북대·한국과학기술·성균관대·현대차·네이버, 항공우주산업 협약 체결

국내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거대 AI 기반 미래 모빌리티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협약식이 지난 12일 국회의원과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전북대에 따르면 이날 협약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생산 효율화, 공정 자동화, 공장 자동화(자율제조) 등을 위한 초거대 AI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해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권영욱 성균관대 부총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유봉석 네이버 정책/PM 대표, 최낙선 한국항공우주산업 전무 등이 참석했다.

또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이성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을)도 자리해 여야를 초월한 협력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날 협약은 산업계와 학계가 힘을 모아 제조 AI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주된



국내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거대 AI 기반 미래 모빌리티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협약식이 지난 12일 국회의원과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내용이다. 특히 제조 AI가 빅데이터 및 AI 기반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시험 검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자율제조는 AI에 물리적 구현을 부여하는 '피지컬 AI' 개념을 적용해 공정 혁신을 도모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정동영 의원은 AI

기본법 통과, GPU 예산 증액, 병역 특례 입법 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AI G3(세계 AI 3강) 도약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2조 원 확보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AI 생태계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양오봉 총장은 '글로벌 3대 AI 강국 도약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초거대 AI 자율제조 혁신플랫폼 구축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전북대와 현대자동차,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네이버,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우수 대기업들과 AI 관련 혁신기업, 대학 연구소가 참여해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초거대 AI 자율제조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번 협약은 AI를 활용한 자율제조 혁신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지역 거점 중심의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전 세계 AI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연구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AI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은 계기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AI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기술과 인프라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전북교사노조 “교육활동 집중 환경 조성에 중요한 의미”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중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정서와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과 보호자의 협조 의무 △긴급한 상황 발생했을 때 교원에 대한 방어와 보호를 위한 제지 조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의 분리 조치(개별 학생 교육지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긴급 상황 대응, 개별 학생 교육지원 과정에서 아동복지법의 일부 조항 적용 배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게는 분리 조치와 함께 교육 지원 방안을 제공하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더욱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전망돼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을 포함한 교육 현상이

더욱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안전뿐만 아니라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지침 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상담·치료 지원의 세부 내용과 대상, 긴급 상황에서의 방어·보호 조치의 범위, 개별 학생 교육지원의 적용 기준과 절차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에서 법을 제대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우리의 교육 현상이 더욱 성숙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과 교사 모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교육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며, 앞으로 우리의 교육 현상이 더욱 성숙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3일 2층 강당에서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전문상담기관 및 특별교육 위탁기관 42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회복 돕는다

전북교육청, 학폭 전문상담기관과 협약 체결

가해학생에게는 특별 교육... 재발 방지 차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3일 2층 강당에서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전문상담기관 및 특별교육 위탁기관 42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거석 교육감과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들 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42개 기관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과 보호자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1곳 △전문상담기관 22곳 △가해학생 특별교육을 위해 가해 전담기관 1곳 △특별교육기관 13곳 △맞춤형(성) 전문기관 5곳 등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심리 치유·회복을 위한 종합검사와 상담을 무료로 지원

한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맞춤형 특별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재발 방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전문기관의 역할”이라며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모두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데이터 기반 정책의 출발점은 인식 강화

전북교육청, 역량 강화 연수... 사례 중심의 특강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3일 초·중·고 시정각실에서 본청 및 직속기관, 14개 교육지원청 직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5년 데이터 기반 정책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사시·도 교육청의 데이터 정책 추진 사례를 분석한 결과, 데이터 기반 행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



성원의 인식 제고가 가장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연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의 데이터 분석 실무담당자를 강사로 초청해 데이터 기반 정책이 교육 현장 해결과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살펴보고,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을 통한 변화와 실사례 등을 공유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은 전북 교육력 제고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정책의 기획·수립부터 성과 공유 등 정책 시행 전과정에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갑질 없는 조직, 실무로 다지는 감사 역량’

전북교육청, 감사담당공무원 대상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13일 이틀간 교육연수원에서 ‘갑질 없는 조직, 실무로 다지는 감사역량’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감사업무담당자뿐만 아니라 감사업무에 관심 있는 지방공무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연수원에 강좌를 개설·운영했다.

연수에는 사전 신청한 지방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2025년 전북교육청 감



사 방향과 감사인의 자세 △감사 기법 등 감사 실무 △감사보고서 작성 방법 △공정과 신뢰의 정령 전북교육 △갑

질인가, 야인가 직장 내 괴롭힘 관별법 △건강한 조직, 소통의 기술(공개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이후엔 감사관은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감사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키우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조직 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감사 행정을 정착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대 김정문 교수,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촉

전북대학교 김정문 교수(조경학과)가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촉위원에 위촉됐다고 전했다. 임기는 2025년까지 12월까지 2년이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광역도시계획·공간혁신구역·개발제한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이다.

김정문 교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1분과위원을 겸하고 있다.

김 교수는 “탄소중립도시 조성, 뉴딜리지 사업, 스마트도시 기술을 활용한 기후회기과 지방소멸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위원회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국립군산대 이차전지

부트캠프 인력양성 설명회

국립군산대학교 이차전지 부트캠프 인력양성사업단(단장 심종교 교수)은 지난 12일, 사업단 참여학과 재학생 및 참여교수 등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사업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업단에서는 이차전지 산업 관련 분야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설명회는 사업단 추진 현황과 2025학년도 프로그램을 공지하고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전북의 새산업 이차전지 산업을 견인할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분야 관련 인력을 공급하여 도내 산업의 인력 확보와 고도화에 기여 하는 것이다. 1차년도 사업기간인 2024학년도에는 이차전지 전구체 및 재활용 분야 맞춤형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관련 산업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했으며,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등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산업체와 대학 연구진(교수 및 학생연구원)이 공동 수행하는 산학 프로젝트와 재학생의 역량강화를 위한 취업캠프, 취업 컨설팅,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 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시 국내외 전공 관련 기업체 및 전시회 관람과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등을 추진한다. /군산=이재훈 기자

“교육가족 합창단원 신청하세요”

전북교육청, 25일까지 접수... 교직원 등 참여 가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가족 합창단원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가족 합창단은 지역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예술 활동 경험을 통해 교육가족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본청 및 도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육 가족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육과 합창에 관심 있는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알토·테너·베이스 파트 약간 명이다. 합창단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5일까지 입단 인사를 작성해 우편(전주시 완산구 호산로 111, 문예체건강과) 또는 이메일(ssyk35@jndukr)로 신청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합창단원은 오디션과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오디션은 3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전북교육청 2층 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가족 합창단은 △주 1회 정기연습 및 파트별 연습 △각종 지역 행사 특별 출연 및 교육 기부 공연 활동 등에 참여하게 된다.

강양원 문예체건강과장은 “합창을 통해 교육가족은 물론 교육에 관심 있는 도민들과 소통하고, 학생들의 문화 예술 교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가족 합창단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전북 교육 발전에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기계설비건설 분야 전문인력 양성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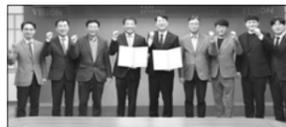
전주비전대, 대한기계설비협회 전북도회와 협약 체결

전주비전대학교는 지난 12일 대학대회의실에서 대한기계설비협회 전북도회와 RISE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주비전대학교 우병훈 총장, 이근상 산학협력담당장, 김은성 평생교육원장과 대한기계설비협회 전북도회 유재형 회장, 정기운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정주형 취·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산업 기반 평생직업교육 체계 구축 및 기업 연계 교육과정,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역 주력산업 기반 교육과정 참여 학생 및 성인학습자의 취업 지원 △지역 연계 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초·중·고교 연계 프로젝트



트 공동 운영 △교육·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이다.

우병훈 총장은 “2025년부터 RISE 체계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유재형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계설비건설 분야의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RISE 사업단, 전주보훈요양원과 협약

전주기전대 RISE사업단(단장 조덕현)은 지난 12일 전주보훈요양원(원장 정도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치유농업과 교수진과 학생대표, 정도일 원장을 비롯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함께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노인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고령층의 건강 증진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기술 개발 △산학협력을 통한 실무형 인재 양성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협력하



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4월부터 11월 까지 전주기전대 치유농업과 교수진과 학생들이 전주보훈요양원의 어르신들과 함께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